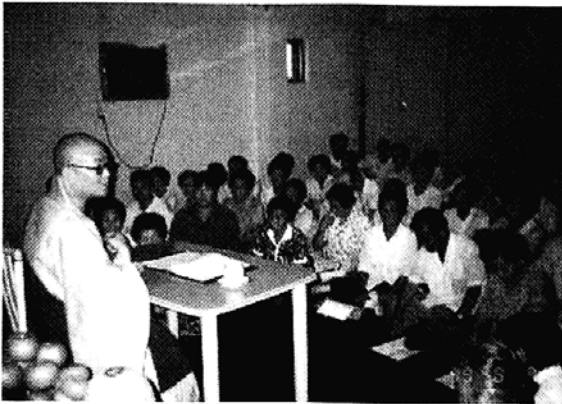


탐방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



연등회 생활관에서는 월 1~2회 법사초청 법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통도사 부산포교원 심상스님 초청 법회 모습.

노숙자 돌보며 국민화합 앞장

회원 2백여명 활동 지역봉사 '일심동체'

정치와 관련된 모임이 생기면, 정치가 불교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 이하 '부경연등회')는 창립이후 포교를 위한 흔들림 없는 행보를 보이고 지역불교를 일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98년 4월, 정치권내 불교 바로 알리기, 종교를 통한 국민화합과 다사화적인 불교역량을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부경연등회는 창립됐다. 부경연등회는 현재 부산불교연합회 성오스님,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을 비롯한 부산불교계 지도자 스님으로 구성된 상임고문과 지도부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원, 종사자들 2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경연등회의 1년 사업은 사안별로 1백50여명의 청년과 보살님 사단을 비롯 기존의 신행단체나 사찰 신도회와 결합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mhcheon@buddhopia.com)

부경연등회는 창립당시 일선 업무자 전원이 새벽예불에 참석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21일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 신심과 열정은 실제 노숙자 무료급식, 노숙자 쉼터 연등회 생활관 운영, 자비의 국수나누기, 지역봉사활동 등의 활동 전반에 한껏 발휘되고 있다. 부경연등회의 주력사업인 연등회 생활관은 98년 11월 개원해 3백21명의 실직자들이 이 생활관을 거쳐 갔으며 이중 1백87명이 귀가했으며 53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현재는 80명이 입소중이다. 연등회 생활관은 노숙자 자활을 위해 선무도, 심리조절, 사회봉사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유대사업으로 무료도배, 장관 교체, 보일러 수리 등에 실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등회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월 1.2회의 법사초청 법회, 무료한방검진등 다양한 봉사활동은 지역내 불교의 바른 위상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다. 천미희 기자

서울지역 경찰불자회 21일 오대산 성지순례

경찰불자 '교류의 장' 기대

서울지역 경찰불자들이 성지(聖地)에 모여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사회 공공의 질서확립과 지역 주민의 치안에 앞장설 것을 발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불자회(회장 이인민 총경)가 손을잡고 21일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서울지역 경찰불자 첫 합동 사찰순례를 개최한다.

경찰청불자회, 마포경찰서 불자회를 비롯한 10여개 서울지역 경찰불자회와 국립경찰병영불자회, 조계종 경찰포교사회 등 1백여 명이 참여할 것

으로 예상되는 이번 성지순례는 경찰불자와 경찰 가족들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 자비로써 이웃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바쁜 업무와 교계의 관심 부족으로 그동안 결속력을 갖지 못했던 경찰불자들을 자생적으로 결집시키고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해 불법의 울타리 속에서 소유지속하는 삶을 배우며 함께 나누고 깨침을 주는 경찰불자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성지순례 개최 실무자로 준비에 바쁜 서울지방청 불자회 임원규

총무(통신보안과 경장)는 "이번 성지순례는 서울지역 전 경찰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행사로 기대가 크다"며 "전국 경찰불자회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경찰포교사회의 활동과 지난 9월 경찰포교지(동북) 창간이후 교계에 경찰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지역별 성지순례 개최 및 경찰불자 모임의 정례화해 꾸준한 행정적 지원과 포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도정발전·친목·불심 다져

경북도의회 정각회·도청불자회 합동법회

경상북도의 행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두기관 소속 불자들이 불심과 친목을 다지는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경북도의회 정각회(회장 주기돈의원)와 경북도청 불자회(회장 김휘동 자치행정국장)는 3일 경북도청내에 있는 도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 새천년 맞이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진오스님, 장성호 경북도의회의장 운영실 도공무원교육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두 단체는 각각 96년과 97년 각각 창립했으며 정각회는 40여명의 회원이, 도청불자회에는 1백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청불자회 안효중 사무국장은 "이번 합동법회는 지난 98년4월에 이은 두 번째 법회로 새천년을 맞아 경북의 발전을 기원하고 두 불자회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대구개인택시 정법회 동화사서 창립 13돌 행사

대구 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는 10월31일 동화사 봉서사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주본 제9대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정법회원 가족을 비롯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동화사신도회장, 이재용 남구청장, 김연대 영남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정법회는 지난 86년 창립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 현재 4백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을만큼 대규모 신행단체로 발돋움했다. 윤불련 호출택시(053-766-7777)도 운영하고 있다.

제6, 7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김주본 회장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신 정법회는 다가올 2천년대에도 지역불교계를 선도하는 신행단체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지하철 무사고 기원 '서울 범우회' 답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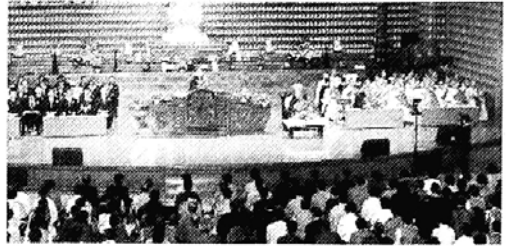
서울지하철범우회(회장 민병준)는 10월24일 전북 진안군 소재 마이산 탐사에서 성지순례 법회를 갖고, 마이산 금당사, 진주 송광사를 참배했다. 또 이날 범우회는 탐사 및 마이산 저수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지하철의 무사고 안전운행과 참회, 그리고 각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했다. 범우회 지도부사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을 비롯 범우회 회원과 가족 등 9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성지순례는 특히 정년퇴임한 신철호(전 차량처장), 홍창근(전 자재창고장), 이종범(전 역장)씨 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지하철 범우회원들의 끈끈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법우애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도필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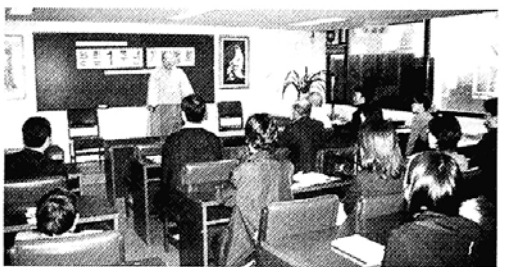
동화사 1506주년 개산대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3일 통일대불 앞에서 창건 1506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동화사 창건이후 처음으로 열린 개산대제에는 동화사주지 성덕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장 단성스님,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동화사신도회장, 문화갑 대구시장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삼광사 창건 30돌 기념법회

천태종 삼광사(주지 덕수)는 1일 지관전에서 30주년 기념법회 및 결식아동돕기 성금 모금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덕수스님은 "어려운 이웃의 안식처가 되도록 소임을 다해 복지국가건설에 앞장서는 삼광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창립 1돌 법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양운)는 10월30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또 총회를 열고 국제포교사 4기 수료생 21명의 공식 입회절차와 2000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도 사업으로 <청소년 영아교우> 발간, <로터스 랜턴> 해외보급 강화, 사찰 가이드 및 포교사 연수 체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려대장경연구회 해인사서 추계연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10월 30~31일 해인사 총재실에서 전직원 추계연수대회를 가졌다. 수련대회는 새벽예불과 108참배, 참선, 특강, 마애불 탐사 등으로 진행됐다. 종림스님은 "12월 인터넷서비스 개시와 대장경 CD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대구하늘동 명동계 모임

하이텔불교동호회 대구경북모임(지역장 유인자)은 10월31일 차(茶)동호인들로 구성된 명동계 모임을 초암수련원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초암다회의 다예시범과 초암이덕형 선생 및 오상용 박사(경북상주대 교수)의 초청 특강이 있었다.

심우회 노인시설 위문

군법당 건립 및 지원 불자 모임 심우회(회장 이 청정행)는 1일 불우노



인들의 보금자리인 자제정사를 위로 방문하고, 목욕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점심으로 국수와 불고기와 떡 등을 공양했다.

부산 교불련 하루첫집

부산교불자연합회(회장 양원식)는 10월30일 중앙동 쌍계사에서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첫집(사진)을 열었다. 학교 일선에서의 청소년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이 행사에서 모인 5백여만원의 수익금은 청소년포교기금 및 불우 청소년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불교사진련 부석사 순례

대한민국불교사진련협회(회장 이병

운)는 10월24일 영주 부석사와 예천 운문사 성지순례 촬영행사(사진)를 가졌다.

'대화합의 원용종단' 실현으로 종단의 안정을 책임지겠습니다.

-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

존경하는 중증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중진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으로 인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서구문명의 사상적 한계와 그로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다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인류 문명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진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우리 종단의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든 종도와 국민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종단 갈등이 1년만에 재발되었고, 아직까지도 거듭되는 분열과 충돌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처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이전에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단 혼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종단을 위해 위법망구는 지세로 나섰습니다.

저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회구하시는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중진스님들의 권유를 받고, 모든 종도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반드시 종단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능동적 의지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다시 부르신 것은 종단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실추된 대사회적 위상과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단의 안정과 대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화로운 종단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종단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종단의 진정한 자주성을 호시하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여 1600년 한국불교가 대사회적 지도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제 종단의 원용실현을 통해 혼란에 미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종단의 안정과 대화합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원용실현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였던 '대화합의 원용종단' 건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종단운영의 철학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종단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전통에 입각한 가장 여법한 해결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화합의 원용종단'은 승가 고유의 대중공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종단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총책임인 단계에서 대중의 의사와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민주적 방식과 대중공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소외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총무행정의 책임자가 종단의 법통과 수행가풍을 면면히 지켜오고 계시는 중증예하와 원로대덕 스님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종단과 한국불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스님들이 불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 때, '대화합의 원용종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종단의 현실에서는 대중공의에 입각한 종단운영의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과 화합'에 대한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화합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2년간의 종단혼란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종도와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를 여법하게 치러내는 것에서부터 종단안정의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종단 안정을 위한 방법과 정책을 가지고 그 누구와도 만나 진지하게 대화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이 화합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종도여러분!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혼란의 불씨를 제거하고 가느라, 아니면 종단의 갈등구조를 안고 가느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아울러 실추된 메로 실추된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회복하여 21세기 한국사회와 민족 문화에 이룰 수 있는 힘있는 종단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금번 선거의 전 과정과 선거 이후에도 오직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 시대가 요청하는 문명사적 대안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우리 종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백암산 사문 지선 합장